

경력단절여성 창업 기회 제공

전주시 완산구,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개강

전주시 경력단절여성 위한 취업과 창업의 기회가 열렸다.

완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문교육의 장을 열고 수강 후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게 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도전의 자력 마련한 것이다.

구가 내놓은 제도전은 전문가 수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교육으로 일자리지원센터 활용한 취업,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한 창업까지 전 개발 방침이다.

완산구는 2023년 상반기 커피바클레이 아트강사 자격취득, 아동요리지도 자격취득, 토털아트지도 자격취득, 노인층 대상 스토리텔링 및 인지활동확보이 프로그램 과정(공방 및 홈스쿨 창업) 등 총 4개 과목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수강생들은 각 10~15주간의 강의를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앞으로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나 아동복지



전주시 완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센터, 문화센터 등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은 위탁교육기관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창의예술연구회의 전문 강사진 지도 아래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수강료 80% 완산구 지원과 자부담 20%에 따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익준 완산구청장은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과정은 여성들에게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외는 전주시 여성가족과 이주은 주무관(063-220-5344)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농식품기업 경쟁력 높인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제품 디자인 개발·상품 고급화 지원사업' 희망기업 모집

전주시가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기호와 제품별 특성이 반영한 디자인 개발을 돕는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주시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상품 고급화 지원사업'의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도 자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기업이 디자인 전문 회사의 도움을 통해 신규/기존 제품

디자인·포장디자인·패키지디자인 등을 개발 및 리뉴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에는 농식품기업 5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업체별 최대 500만원(80% 지원) 이내로, 기업의 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이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농식품기업(운영실적 2년 이상)이며, 시는 1차 서류평가에 통과한 기업을 상대로 2차 심의 평가를 실시해 최종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17일 오후 6시까지 전주농업기술센터 농식품산업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홍성 전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주시 농식품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도민 신뢰' 전북경찰 방향 모색

전북경찰 지휘부 워크숍 가져

전북경찰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여

당당한 전북경찰의 도약을 함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도내 15개



전북경찰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여 당당한 전북경찰의 도약을 함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찰서장 및 전북경찰청 부장과 과장급 30여 명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기능별 현안업무 진단, 전북경찰의 특강과 당부사항,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전북금융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및 검거 방안, 사회약자 보호 활동,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활동,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관리,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현장 대응,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전북경찰청 각 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강황수 청장은 특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역습'라는 주제로 범죄의 진화와 화폐의 발전 및 디지털 시대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경찰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황수 청장은 '성리(性理) 성사(省事) 성심(省心)'의 살림의 차이를 전북치안의 원칙으로, 지휘부가 더욱 세심하게 도민 안전을 위해 힘 쓸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청명·한식 맞아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주덕진소방서는 청명·한식 기간(4.4~4.7.) 중 식목 활동과 성묘객 및 봄꽃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으로부터 특별경계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산불 위험에

대한 예방과 진압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오는 7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211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53명, 사회복무요원 4명 등 368명의 인력을 동원

하고 소방펌프차와 불탱크차 등 31대의 소방 장비를 동원해 화재 예방 활동 및 초기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우려 지역 화재 예방 순찰 강화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화재취약지역·축사 등 화재안전 컨설팅 및 홍보 강화 △대형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장비 사전점검 △탐지관 상황 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강화 및 산림청·자치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전 직원 비상응소태세 등 총력 대응태세 유지 등이 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식목 활동과 등산 등 목적으로 산을 찾는 입산객 모두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내 중소기업을 위한 '2023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내 본사를 둔 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중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 비용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중소기업들의

'기업 기술 보호, 사업진출 경쟁 우위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9일부터 선착순으로 총 사업비 1500만 원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미출원 건에 해당하며, 해외특허비와 국내특허-실용신안의 총출원 비용 중 70%를 지원한다.

단, 지방세 체납이나 휴·폐업 기업, 동 사업 관련 중복수혜 기업에 대하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증명서류를 갖춰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premier17@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이기용 주무관(063-281-2868)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완산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변경 사항에 따라 관계인의 편의를 돕고자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기존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됐던 명칭이 작동점검, 종합점검(종합점검, 최초점검)으로 변경됐다.

'최초점검'이 신설되어 소방시설 신설 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

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 가능했으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간도 변경되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점검기록표를 첨부해 결과

를 제출하고, 관계인은 자체점검실시 결과보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를 막고자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화가 시행되어 관리사 및 입주주민은 2년 이내 모든 공동주택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확인해 소방안전 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 관계인 역시 개정된 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